



전은, 2500만원 상당 수해·화재 긴급구호키트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영복)은 지난 5일 본점 1층 로비에서 2024 수해 및 화재 긴급 구호키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기후변화에 등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 구호키트는 2500만원 상당으로 즉석밥 미역국, 참치캔, 볶음김치캔, 즉석커피 등 총 7종으로 구성된 비상식량 세트와 천연아기 스낵(아이스), 아로마오일, 찜질팩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마음 힐링 키트로 구성했다.

총 920명분의 구호 물품은 재난·재해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재난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사용되길”

제26회 친절봉사대상 수상자 최정숙 씨, 적십자 부안지구에 상금 전액 기탁

지난 6월 2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2층에서는 제26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공무원 부문, 경찰공무원 부문, 민간인 부문으로 나누어 4명을 시상했는데, 민간인 봉사 부문에서 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직전 회장인 최정숙(여, 66, 서해안건설 대표)씨가 수상하게 됐다.



최정숙수상자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이선홍 회장, 김현국 사무처장, 이정훈 팀장과 부안지구협의회 박영숙 회장 등 적십자 봉사활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같은 회원으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정숙씨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친절봉사대상 수상자인 최씨는 수상 시 받은 상금 전액을 7월 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 부안지구협의회에 전액을 기부했다.

최정숙 씨는 평소에도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1996년 7월 1일부터 적십자봉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봉사활동에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날까지 봉사 정신을 잊지 않고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최씨는 평소에도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한다.

특히, 부안지역에서 재난 구호와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눔 효과 관광, 한혈캠페인과 집수리 봉사 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부안지역에서는 선행이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한편, 최정숙씨는 재능 기부 활동에도 열심을 보여 (사)한국재능기부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재능 나눔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 재능기부인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사)한국재능기부협회 최세규 이사장으로 부터 올해 3월 26일 대한민국 재능 명인대상도 받게 되었고 7월 1일에는 재능나눔 인정서도 수여받는 등 경성시를 맞았다. /01만호 기자

장수군 장애인탁구,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확정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장애인탁구단 소속 TT3등급 백영복 선수가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184개국 4,400여 명이 참가해 개최된다.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선수단은 메달 획득을 목표로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대한민국과 장수군을 뺀 10개국 경기를 이천선수촌에서 훈련중이며 이번 올림픽은 세 번째로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 장수군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최훈식 회장은 "세계인의 무대에서 스포츠를 통해 실력을 겨루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훈련과 대회참가에 부상없이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수군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TT3등급 백영복 선수

한편 장수군장애인탁구선수단은 2022년에 개최된 제16회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남자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2023년에 개최된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해 여자단체 은메달과 여자복식 동메달을 획득하며 장수군장애인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 장수군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남원 대강면, 노인 일자리 안전교육

남원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종표)는 지난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1월부터 12월 중 10개월 동안 월 10회 진행 하루 3시간(총 29만 원) 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잡초 뽑기, 화단 가꾸기, 분리수거 등 환경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여름철 대비 진드기, 뱀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 예방 안내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안전조끼를 배부하며 일자리 참여시 항상 착용하고 쓸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장수군 계북면(면장 이종현)은 지난 3일,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리는 2024년 제2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이정관 계북면 축제추진위원장의 주재로 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계북면 축제추진위원회(이정관 위원장), 이장협의회(송동훈 협의회장), 계북면 토마토 연구회(하정식 회장), 수박 연구회(김진원 회장)에서 참석했고, 축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김영식 사무국장)과 장수군 지역활력센터(이지숙 센터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계북면 축제추진위원회는 홍보팀, 공연구성팀, 부스구성팀, 프로그램 운영팀, 먹거리팀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추진상황을 보고했고, 각 분과별 협조사항 및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축제까지 약 30여일이 남은 가운데 풍성한 축제를 구성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정관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진행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종현 면장은 "간담회를 통해 한단계씩 축제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 자체만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관련단체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진행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종현 면장은 "간담회를 통해 한단계씩 축제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 자체만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은행, 전주 JB희망의 공부방 172·173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영복)은 전주시 소재 호성지역 아동센터, 효자지역 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72호, 제173호' 오픈식을 각각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부의장), 전주시의회 김성규·은혜정 의원, 호성지역아동센터 이상일 대표 및 심현순 센터장, 효자지역아동센터 김명숙 센터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호성지역 아동센터는 오염된 벽지와 계절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장판, 오래된 책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을 새롭게 지원했다. 또한,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시급했던 화장실 환경 개선을 실시해 센터의 오랜 고민과 불편함을 해결했다.

효자지역 아동센터는 14년이 지나 찢어지고 색이 바랜 벽지, 고장으로 흔들림이 심해 아동들에게 위협했던 책상과 의자를 전면 교체했다. 특히 먼지와 얼룩 등으로 아동들의 호흡기와 미관에 좋지 않았던 바닥 카펫도 장판으로 교체해 깔끔한 환경을 조성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아동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말에 공부방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보람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01만호기자



무주군, 전북은행 시원키트 60박스 기탁

무주군은 지난 5일 전북은행(행장 백종일, 무주지점장 김성수)이 시원(ood)키트 60박스(250만 원 상당)를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전성익 부행장은 "전북은행에서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위해 더욱더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원(ood)키트를 준비해 전달하게 됐다"라며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며 키트에는 여름용 흡습이불과 쿨매트, 선풍기 등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전북은행으로부터 기증받은 시원(ood)키트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도통동, 적극 돌봄행정 추진 '큰 호응'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동장 및 맞춤형 복지팀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 1인 가구, 저소득 세대, 심한 장애인 가구, 고령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 가정 방문을 추진해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불편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돌봄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총 487가구를 방문해 공적급여 신청, 환경정비 건강상담 및 확인, 이웃돕기 현물지원 등 약 1,150건의 복지서비스 연계,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도통동은 시 우수 공영서비스 5건과 등의 △정동 무선리모컨 설치 △따뜻한 동행 재능기부 △따뜻한 한끼 행복찬 밥상 등을 추진 1일 1가구 방문 시 적극 연계하는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063-620-4854)로 연락하면 된다.

소선자 동장은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동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선자 동장은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동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선덕 고창군의원, 2024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을 수상받았다.

이선덕 의원은 제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의회 발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상을 수상한 이선덕 의원은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 행정의 방향성이 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고 제대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게 된다.

이선덕 의원은 "이렇게 귀한 상을 안겨주심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든다. 남은 임기동안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6월부터 농아인 협회와 청각장애인 대상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과 10월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로 찾아가는 지적·발달, 시각장애인 대상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실은 총 24회로 실시, 내용은 △신체활동에 위한 건강체조 △관절건강 및 낙상예방 △구강관리 △대사증후군관리 영양교육 및 체성분 검사 △생활습관에 등 만들기 재활 △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우울증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과 어울림 놀이마당을 통한 마음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6월에 실시한 청각장애인 대상 건강교실은 27명이 참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수화 통역사 동시통역으로 진행하며 건강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면서 참여자와 관계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산외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정읍시 산외면은 지난 4일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회의위원회 홍석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해 총 2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산외면은 지난 5월 한달 간 지역민으로부터 20여건의 사업을 제안 받아 자체 검증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특수 시책 3건과 현안 사업 20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재난대책 등 위급 시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가호호 마을방문시스템 구축 등 2개의 특수시책과 지역현안사업 4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산외면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